

지역 소식통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합동 추석명절 물품 지원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강정완)과 국제로타리클럽 3670 지구 김제지역로타리클럽(회장 김미정)의 후원으로 지난 22일 재가서비스 이용인들의 풍성하고 훈훈한 한가위를 위한 물품을 지원했다.

단야로타리클럽은 2011년부터 매년 명절물품을 통해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번에도 제14대 김미정회장과 회원들이(과일, 식용유, 햄, 참기름, 당면, 조미김, 계란 등) 8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비해 비대면으로 물품을 전달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가며 진행했다. /김제=곽노태기자

김제 여성자원활동센터
사랑꾸러미 나누기 행사

김제시 여성자원활동센터(회장 운영)에서는 지난 23일 추석명절 맞이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꾸러미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독거노인과 저소득세대 등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에게 정을 나누기 위해 멸치, 황태채, 마른새우를 꾸러미로 만들어 80여 세대에 2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배달했다.

이와 같이 김제시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는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추석명절 즈음에 20년째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김제=곽노태기자

김제 치매안심센터
치매 극복 주간 운영

김제시보건소(소장 서흥기)는 제13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치매 극복주간을 운영했다.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 두기 생활수칙을 준수하며 치매 안심마을인 월성동과 검산동 주공 아파트, 길보른사회복지관과 연계한 수류권역 지역을 중심으로 843세대에 걸쳐 '치매 안심 꾸러미'와 '치매 예방꾸러미'를 전달했다.

치매에 대한 궁금증은 김제시 치매안심센터(☎540-1327) 또는 365일 24시간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독도 · 통일문예교육으로 '우뚝'

완주 세인고등학교, 대한민국 독도문예대전 청소년부 대상 수상 정세희
한민족 통일문화제전 국회의장상 수상 정하은 외 6명 특선·입선 '꽤'

전북 완주군에 세인고등학교(교장 신형수)에 학생들이 독도문예대전 및 통일문화제전에 참가해 좋은 성과를 올렸다.

한국예총 경상북도연합회가 주관하는 제10회 대한민국 독도문예대전에서 정세희 학생(고2)이 청소년부 문학 부문에서 전국 대상을 수상했으며, 민족통일협의회가 주최하는 제51회 한민족 통일문화제전에서 웹툰 부문으로 참여한 정하은 학생(고2)이 국회의장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갈매기의 편지'라는 작품으로 10월 15일 전국 대상을 수상한 정세희 학생은 "독도에서 살아가면서 지금껏 많은 것을 보아온 갈매기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글을 썼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 학생 외에도 문학부와 동영상 부문에서 6명이 특선과 입선을 차지하였다.

'통일 할래요'라는 웹툰 작품으로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정하은 학생은 "친한 두 친구의 모습으로 북한과 남한의 모습을 표현했으며, 예전에는 정



말 친했던 두 친구가 싸워서 한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오랜만에 연락이 되어 다시 친구를 다짐하는 모습을 통해 북한과 남한도 전쟁으로 인해 잠시 갈라졌지만 하나였던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담았다"라며 자신의 작품을 소개했다.

정하은 학생은 학생부와 일반부를 통틀어서 전국 2등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하게 돼 그 의미가 크다. 추석 연휴 이후 수상하게 되는데, 응모한 학생들 가운데 전북 지역 기관장상을 수상할 학생들이 나올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독도교육과 통일문예를 자진해서 담

당해 온 이준철 교사는 "해를 거듭할 수록 학생들이 가진 무한한 창의력에 놀라며, 학생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주어 고맙다"고 말했다.

한편, 나라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세인고등학교는 1999년에 개교한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로서 전라북도의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초석을 놓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며,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2021학년도 신입생 원서접수가 예정돼 있다. /완주=이종복기자



완주군과 삼례농협에 따르면 지난 5월 첫 출하된 삼례수박 블랙위너는 출시하자마자 전국 롯데마트에 입점되는 쾌거를 누렸다.

'삼례수박' 올 여름 최대 히트 상품

완주 삼례수박 '블랙위너' ... 첫 출하 즉시 롯데마트 입점 '꽤'

완주군 삼례수박 '블랙위너'가 올 여름의 히트상품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24일 완주군과 삼례농협(조합장 강신학)에 따르면 지난 5월 첫 출하된 삼례수박 블랙위너는 출시하자마자 전국 롯데마트에 입점되는 쾌거를 누렸다.

블랙위너는 농우바이오에서 육성한 고품질 수박으로 일반수박보다 재배가 수월할 뿐만 아니라 껍질이 얇고 조직이 치밀한 강점이 있다. 당도 역시 13~14브릭스로 일반 수박보다 높고 값도 싸게 팔리며 농가 수익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완주군과 삼례농협, 롯데마트의 마케팅도 한몫했다.

롯데마트는 출시 초기 보양식 할인 행사로 블랙위너수박을 넣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면서 빠르게 블랙위너가 소비자에게 인식되도록 했다. 특히, '산지 특심 프로젝트'라는 홍보 활동으로 블랙위너수박의 산지 완주군 삼례읍을 전국에 알리는 역할도 특

특히 했다. 완주군과 삼례농협도 시식행사 개최 등의 다양한 방법의 홍보로 수박 판매에 힘을 실었다.

대대적인 홍보로 블랙위너가 소비자에게 인소문이 나면서 올해 삼례지역 16개 농가가 생산한 5만여 통의 수박은 수확하는 즉시 모두 전국 롯데마트 120여개 전 점포에 350톤 이상을 납품했다.

올해 삼례농협에서는 450톤을 출하해 7억원 가량의 판매고를 올리는 성과를 올렸다.

이에 힘입어 삼례농협은 생산능력을 현재 16농가 5ha에서 30농가 10ha로 확대해 출하량을 1000톤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15억원의 판매고를 노려볼 수 있다.

송미복 농업축산과장은 "올해 블랙위너수박을 통해 삼례수박 브랜드가 한층 상승했다"며 "소비자들이 인정한 신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고품질 수박이 계속 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전국최초 청소년 수당 11월부터 지급

관내 거주 만 16~18세 청소년... 연 최대 60만원 바우처 지원

김제시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청소년드림카드 사업을 올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의 완료, 관련조례 제정·공포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했으며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204백만원을 확보하여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청소년드림카드는 소득·재산에 관

계없이 매월 1일 김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만 16~18세 청소년에게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월 5만원(연 최대 6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2002~2004년생 1,976명이다.

사용처는 김제시 관할 행정구역 내에 있는 영화관, 공연장, 각종 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기술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학원, 서점, 이·미용실, 문구점 등이며, 가맹점으로 지정된 사

업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카드 신청은 운영시스템 구축 완료 시기인 10월 12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청소년 본인(법정 대리인 동의 필요)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사업인 만큼 신청자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관내 고등학교를 통해 집중신청 받을 예정이다.

보편적 복지사업인 만큼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차상위, 한부모가정 포함)는 소득변영에 따른 자격변동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김제=곽노태기자

김제지평선 온라인 축제, 프로그램 사전접수 예약 조기 마감

김제지평선 온라인축제 집콕세트 2종이 1차에 이어 2차접수도 마감행진을 이어갔다.

지난 14일 첫 선을 보인 김제지평선 온라인축제 6개 프로그램은 당초 접수

기간을 한참 남긴 채 단 4일 만에 모는 사전접수 예약이 마감됐다.

마감 이후에도 구매 문의 쇄도로 집콕세트 3종 중 '라이프집콕세트', '체험꾸러미'에 대해 22일부터 2차접수를

진행했고, 각 200개씩 50% 할인가격으로 내놓은 추가분도 이를 만에 매진되며, 김제지평선 온라인축제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과 열풍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제=곽노태기자

부량면 복지기동대, 안전손잡이 설치 '구슬땀'

김제시부량면 복지기동대(대장 김상철)는 24일 김제시자원봉사종합센터(센터장 허현기)의 지원으로 관내 거동 불편 취약계층 8세대에 화장실 안전손잡이와 미끄럼방지매트를 설치했다.

이번 '안전 손잡이는 안심 집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의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김제시자원봉사종합센터의 도움을 받아 추진됐다.

이날 재능기부를 펼친 김제시소상공

인협회 김형문 회장은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량면 복지기동대는 매달 1~2회 독거노인 및 주거 취약계층의 불편사항을 파악해 전등 교체, 방충망 교체, 도배장판교체 등 능동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